

남북한 역사교육 분석을 통한 역사의식 통합 방안모색

이 준 태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맺음말 |
| II. 남북한의 역사교육 비교 | 참고문헌 |
| III.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국사교육 방안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 남북한 역사교육(Historical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역사교과서(Historical Textbooks), 남북통일(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역사의식(Recognition on History)

국 문 요 약

역사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는 어떤 국가나 사회가 구현하고자하는 정체성의 대표적인 표현물이라고 생각된다. 반세기 이상을 완전히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사회조직을 구현해 온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은 사회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동일한 역사에 대한 역사 교과서의 서술의 차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질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발전적인 시각에서 파악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자주적 역사에 대한 긍지를 지니며, 새로운 역사 창조에 기여한다」와 「계급의식을 고양하고 반외세 투쟁정신을 고취하여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혁명의 위업을 수행한다」는 교육목적에서부터 그 교육의 지향성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바, 현재의 시점에서 염려되는 것은 지난 온 시간의 차이점보다는 이러한 서로 다른 방향성에서 형성된 후세의 역사 인식이 통일 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할 민족동질성 회복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국사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국사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금 보다는 더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되며,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국사 교과서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는 첫째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국제화의 흐름에 맞는 보편성

을 확보한 세계사의 방향에 부응하여야 하며, 둘째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다양한 사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현재의 국사교과서의 분량을 대폭 확충해야만 한다. 셋째 국사교과서의 집필진은 근현대사 부분의 정치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을 감안하여 중립적인 학자들로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고 넷째, 교육과학기술부나 국사편찬위원회 산하에 '통일 후 국사교육 준비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설치를 들 수 있다.

I. 서 론

한 국가와 사회의 역사 서술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역사 교육은 그 정체성을 집단 구성원에게 유입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때, 역사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는 그 집단이 구현하고자하는 정체성의 대표적인 표현물이라고 생각된다.

단일민족으로 5천년 이상 역사를 공유해온 우리 민족이 냉전의 희생물로 남북이 분단된 채로 서로 이질적인 체제를 구축해온 지 이미 60여 년이 흐른 현재에도 남북한은 각각 한민족 공동의 역사를 「韓國史」와 「朝鮮史」로 다르게 부르며 그 역사서술과 인식체계에서 넘을 수 없는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그 해석과 의미는 다양할 수 있고, 남·북한 양측의 체제나 이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역사인식과 서술이 상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이기는 하나 남북한간 국사교육 내용의 이질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심히 우려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한편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진행된 냉전체제 붕괴와 같은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내외의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통일문제는 감각적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현실적 과제이므로, '남북 통합' 내지 '남북통일'에 대비한 교육적 준비를 시급히 모색해야만 할 시대적 요청으로 대두되어 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해지고 있는 남북한 경험 등과 같은 남북한 접촉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통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심적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전개, 어떠한 모습의 통일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통일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면 될수록 우려되는 부분은 통일 이후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 민족동질성 회복 부분을 염려하는 이유는 그동안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 환경으로 인해 다르게 인식되어져온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 주입시켜왔기 때문이다. 하나의 역사에 대한 서로 상반된 역사 인식을 어떻게 추리고 정리하여 후세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가는 통일 후의 미래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남북한 각급 학교의 국사교육의 현황과 양자 간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국사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향 하에 제1장의 남북한 역사교육비교에서는 남북한 각급 학교에서의 역사교육

현황을 분석해 남한의 경우 7차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고교에서의 국사교육 개편현황과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의 국사교육 운영 실태와 교육의 목적 및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또한 각 지역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인 남한의 『국사』와 북한의 『조선력사』 교과서의 체제와 단원 구성, 남북한 시대 구분, 남북한 역사교육의 목적과 교과서 주요 내용 비교, 역사용어 및 개념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남북한 양측의 국사교육의 역사인식에서의 이질화 현상을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제2장의 통일 이후 역사인식 통합을 위한 국사교육 방안에서는 남한에서의 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통일을 대비한 국사교과서 개편 작업의 방향 및 개편작업의 필요성, 통일 후 북한에서의 국사교육 시행 방안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지도 모를 통일 후를 대비한 국사교육의 정책적 대안을 구상해보기로 하겠다.

II. 남북한의 역사교육 비교

1. 남북한 역사교육의 현황

(1) 남한의 각급학교 국사교육 현황

① 초등학교의 국사교육

1992년 실행된 제6차 교육과정¹⁾부터 초등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은 독립교과로 편성하지 않고 “고장·지역·나라·세계의 모습을 자연 환경 및 역사와 문화, 민주적 공동생활 등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게 한다”는 목표 하에 4~6학년²⁾에 걸쳐 사회과에 포함되어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국사학습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3학년 단계에서는 고장 수준에서 ‘고장의 유물·유적 등 관찰 및 자료조사, 고장의 변화에 대한 그림연표 만들기, 신변자료 통해 과거와 전통에 대한 흥미와 관심가지기’등을 학습함으로써 고장의 역사적 내력을 파악하게 한다. 둘째, 4학년 단계에서는 시·도지역 수준에서 ‘시·도지역의 유물·유적관찰 및 자료조사, 연표와 역사지도 읽기 및 그림연표 만들기, 시·도의 문화재 보호하기’를 학습함으로써, 시·도지역의 내력과 우리나라 왕조명의 개략적 이해 등을 통해 국사학습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5학년 단계에서는 국가수준에서 ‘문화재의 가치와 보호, 조상들의 교육·학습·예술·종교활동의 특색, 오늘날과 옛날의 문화 자료를 통해 비교하기, 조상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국가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마음 가지기’를 학습해 국사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하게 함으로써 6학년에서의 본격적인 국사학습을 준비하도록 한다. 넷째, 6학년

1)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에 따라 1992년부터 실행된 제6차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1,2학년은 통합교과를, 그리고 3학년부터는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 9개 교과를 학습하게 되어 있다.

단계에서는 아동들의 세계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단서 및 사회인식을 위한 역사적 기초 제공을 위해 국가와 세계 수준에서 세계사의 흐름과 관련해 ‘우리민족과 국가의 형성·발전, 각 분야에서 활약한 조상 등, 근대화를 위한 노력, 민주국가의 발전’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중학교에서의 국사학습에 대비하게 한다.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바른생활, 도덕, 슬기로운 생활, 사회, 자연-』, 1994).

② 중학교의 국사교육

중학교 국사교육도 제6차 교육과정부터 20여 년간 사회과에서 분리 교육되었던 중학교 국사영역이 사회과로 통합됨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현상을 지역 및 사회현상과 연계시켜 학습하게 하였다. 따라서 현행 중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은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게 하여,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목표하에 2학년 과정에서는 조선전기 까지를 그리고 3학년 과정에서는 조선후기 이후를 학습하게 되어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교과중 국사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도입 단원을 신설해 역사학습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역사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둘째, 제5차 교육과정기의 왕조중심의 연대사적 내용구성에서 벗어나 지배세력의 변천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핵심 개념과 주제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교육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4)

③ 고등학교 국사교육

고등학교 국사 교육도 제6차 교육과정부터 윤리, 국어, 한문,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교양 선택 등 13개의 보통교과 중 사회과의 독립된 공통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사과는 ‘민족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 확립’을 위한 교과목으로서, 국사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민족문화 유산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국사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국사 교육 내용과는 달리 국사교육의 학교급별 계열성을 분명히 한다. 즉 고등학교 국사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대의 변천과 발전을 분야사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체득하게 하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문제 해결과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와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기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민주사회의 시민적 자질 함양을 목표로서 강조하여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성원에게 요구되는 ‘역사의식’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강조하고, 둘째, 세계화와 지역화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 국사와 세계사의 관련 학습을 강조하고, 국사과에서의 지역화를 위한 향토사 학습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국사학의 새로운 연구경향을 반영해 사회경제사의 연구 성과를 강조하는 등 분야사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5)

(2) 북한 조선력사 교육의 현황

① 인민학교 교육

1983년 정무원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가 펴낸 ‘인민학교 과정안’에 따르면 4년 과정의 인민학교의 교과과정에는 민족사에 대한 교과목은 찾아볼 수 없다. 즉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과정은 아동들에게 ‘건전한 인격과 폭 넓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 보다는 ‘정치사상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족사 교육이 아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과목이 1~4학년에 걸쳐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김일성이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주와 혁명정신을 보였다는 김일성 우상화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후자는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과 연결된 김정일 우상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요컨대 인민학교 교육은 4년간 총 수업시간 3,603시간 중 44%인 1,598시간을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내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사상 교육에 배당하고 있을 뿐 민족사에 관한 교육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남북문제연구소, 1994)

② 고등중학교²⁾의 조선력사 교육

먼저 북한의 국사과목 교육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출판된 『現代海外教育』의 「朝鮮教育」편에 의하면, 북한의 고등중학교는 6년에 걸쳐 21개 교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수업시간 수는 6,532~6,545시간에 달한다. (孫啓林, 1988). 고등중학교의 교육은 정무원 산하 교육위원회의 보통교육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안’을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장과 교사들은 교수 자료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과정 안에 포함된 교과목 중 정치사상의 주입을 위한 교양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학교 교육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중대 원칙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이다. 1983년 3월 제정되어 1983년부터 1984년도에 사용되어 있는 북한의 교육과정에 관한 명시적 지침이 담긴 공식문서인 ‘과정안’ 중 ‘고등중학교 과정안’에 따르면 국사과에서는 2학년부턴 4학년까지 『조선력사』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주안점은 민족사 교육보다는 주체사상의 함양에 두어져 있다. 즉 북한의 국사교육은 ‘民族史 보다는 김일성 혁명투쟁사’ 등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민학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어린시절’이라는 과목이 1~4학년에 걸쳐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고등중학교 1~3학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혁명활동’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그리고 4~6학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혁명력사’가 중점적으로 교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북한의 고등중학교의 국사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주체학습론’에 따르면 “역사학습에서의 기본은 자주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적 력사를 학습하는 것이다”(금성청년출판사, 1982) 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도 “우리 나라 력사는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 안팎의 원수놈들을 반대하여 싸워 이긴 반동 통치 지배의 억압과 예속을 반대하고 외래 침략

2) 고등중학교는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6년제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령에 해당됨.

자들의 침입을 쳐 물리친 투쟁의 역사”이며 생산(과학)과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창조역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한국사를 반봉건·반외세 투쟁의 약사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 역사교육의 목적은 『조선력사』 2학년 교과서 머리말에 실려 있는 “조선 혁명을 잘하려면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국가교육의 목적은 계급의식을 고양하고 반외세 투쟁정신을 고취하며,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남한의 국가교육의 목표가 “우리 나라 역사의 흐름을 발전적인 시각에서 파악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자주적 역사에 대한 긍지를 지니며, 새로운 역사 창조에 기여하게 함”에 있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 오로지 “계급의식을 고양하고 반외세 투쟁정신을 고취하여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혁명의 위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 비교된다. (이찬휘, 1991)

2. 『국사』와 『조선력사』의 역사교육의 목적 및 주요 내용 비교

교과서는 학생들의 교과활동에 활용되는 기본 교재이므로, 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투철한 국가관, 민족사의 방향, 그리고 국민교육의 지표’를 제시하는 국가교과서가 국민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타 교과서와 비교할 수 없다.

남한의 중학교 『국사』의 머리말에는 “역사란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가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역사의 기본지식을 이해해야 한다,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역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고등중학교 2학년용 『조선력사』의 머리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잘 알아야만 조선혁명을 잘 할 수 있고 주체가 선 참된 조선의 애국자,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김일성 주석의 교시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앞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준비하는 것이 역사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간 역사이해와 국가교육의 목표가 다른 현실 속에서 남북한의 국가교과서 기술은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즉 남한에서는 가능한 과거 사실의 객관적 파악에 치중하는 반면,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공산주의 혁명화의 인간양성에 주목적을 둔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의 교양을 위한 수단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양측의 역사해석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국가교과서 제작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남북한 국가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국가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³⁾ 이들 연구에서

3) 남북한 국가교과서를 비교·분석한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① 이찬희 외, 『북한의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북한의 고등중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조선력사』 2, 3, 4, 5, 6권(2002년)과 남한의 고등학교 교과서 『국사』(2002)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민족의 기원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민족의 근원지는 파미르 고원, 혹은 알타이 산록 어디쯤이며, 언어학적으로는 “우랄·알타이어족”이라는 주장이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제기돼 해방이후 초·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될 정도로 상식적인 사항이다. 현재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 민족의 근원을 한반도에 두고 있다. 즉 1966년 평양시 상원군에서 발견된 각종 동물의 화석에 근거해 이미 60-40만년 전에 한반도와 만주일대에 원인이 거주하였고 그 후 이들이 진화해 현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역사서술에서 현대사 다음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고대사인데 교과서의 경우에도 『국사』에는 4쪽이나 『조선력사』에서는 10쪽을 할애하여 생산도구의 제작이나 구석기시대의 인간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종교에 관하여서도 『조선력사』에서는 종교를 인민 착취를 도구로서 간주하고 유교는 왕을 받들게 강요하는 반동적인 종교이며, 불교는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킨 아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사』에서는 불교는 재래신앙의 한계를 극복해 고대국가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예술향을 발달시켰으며, 유교는 학문과 역사발전을 기여했다고 본다. 즉 불교는 민족문화와 예술발전에 기틀이 되었으며 유교는 우리국민의 윤리관의 기저를 이루어 국민의식을 높여준 학문으로 보고 있다.⁴⁾

통일신라 문제에 대해 남한 교과서는 신라의 고구려, 백제 통합으로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는데 대해,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신라가 당의 세력을 끌어들여 행한 외세에 의존한 것이고, 영토 면에서도 만주의 광활한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고 한반도 대동강 이남 지역만 확보했다고 하여 단순한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으로 보고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 발해와 후기신라의 남북국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 교과서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첫 통일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고려는 발해가 멸망한 후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바, 이러한 해석은 최초의 민족 통일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로 보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민족의 재통일로 보는 남한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글 창제의 경우에도 북한은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에게 봉건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나, 남측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마음껏 펼 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문화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북한은 한글창제에 있어 세종의 역할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

② 이찬희, 『북한의 역사교육 연구 -「조선력사」 신·구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③ 강우철·신형식, “남북한 국사교과서(중학교)의 비교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Vol. 57 (1990).

④ 조선일보사, “역사 南과 北 -분단 50년 국사교과서 비교,” 1-14, 『조선일보』, 1995. 3. 1~1995. 12. 27.

⑤ 서울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모형 개발 연구』.

⑥ 이연복·문동석, “남북한 초등 역사교과서 비교연구,” 『사회과교육』, 제 41권, 2호 (2002).

⑦ 정영순,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연구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 45권, 1호 (2006).

4) 『조선력사』 2권, 유교와 불교와 『국사』 상권 종교 참조.

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물론 사적 유물론과 사회발전주체를 노동자 인민대중으로 파악하는 사관이 갖는 당연한 귀결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퇴계와 율곡에 대해서도 남한에서는 이들 두 사람을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대표하는 거봉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퇴계에 대해 ‘그는 봉건사회의 계급적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반동적인 「인성론」을 내놓았다’고 매도한 반면, 율곡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량반계층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한 유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의 역사서술은 근세로 내려오면서 더욱 남한의 서술과 차이가 심해져 교과서에 나타나는 근대사 서술의 남북한 격차는 더욱 심각해진다. 『조선력사』는 병인양요·신미양요·강화도 조약을 문호개방 이후 인민들의 반외세 투쟁사로 서술하고, 임오군란·갑신정변·동학농민운동·갑오개혁은 개화세력과 보수세력의 갈등관계로 인한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실패로 서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부르주아 민족운동이 끝장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여 김일성의 등장을 역사의 필연으로 주장하고 있다.

근대사의 왜곡은 김일성 일가의 가문을 신격화하는 작업으로서, 이는 김응우, 김형직, 김일성 3대와 김일성의 외조인 강돈옥, 외삼촌인 강진석 등 5명에게만 선생님 칭호를 붙였으며, 김일성을 표기할 때는 고딕체 활자로 크게 쓰고 있는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일례로 1866년 서만호 사건에 대한 남북한의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우선 『조선력사』에서는 서만호 격침으로 김일성 일가가 근대사 이후 항쟁사를 주도하게 된 첫 단계임을 강조하였고, 『국사』에서는 열강의 침투과정 속에서 조선의 정세를 설명하는 가운데 “밖으로는 이양선이라 불린 서양제국의 선박이 우리 연해에 자주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며 위협하였고”라고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다.

〈남북한 국사 교과서 서만호 사건에 대한 서술 비교〉

| 구분 | 『조선력사 4』 | 『국사 하』 |
|----|---|---|
| 제목 |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증조 할아버지 이신 김응우 선생님을 선두로 한 평양인민들에 의한 미제 침략선 ‘샤만호’의 격멸 | 병인양요 |
| 내용 | 미제 침략선 ‘샤만호’를 쳐부시기 위한 우일 인민의 첫 반미투쟁의 앞장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 이신 김응우 선생님께서 서 계시었다. 김응우 선생님께서는 미제 침략자들이 쳐들어오자 만경대와 평양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들을 쳐부수기 위한 정의와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었다. 김응우 선생님께서는 만경대 인민들을 이끄시고 밧줄을 모아 만경봉 소나무와 강건너 편이 뽕나무 사이에 여러겹으로 거너 매놓으시여 침략선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시었다. (3권, pp. 93~94) | 미국상선 제너럴서먼호(General Sherman)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가 평양군민들에 의하여 불태워진 사건이다. 후에 이 사실을 안 미국은 아시아합대를 동원하여 강화도에 침입해 왔다. (하권, p. 50) |

『국사』와 『조선력사』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의 교과서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북한에서는 역사 해석권을 당이 장악하고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과거의 역사가 재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건설·김일성 우상화·주민교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조직적으로 역사가 왜곡되어 왔다. 특히 『조선력사』의 내용을 『국사』와 비교해 볼 때 전자는 현대사 서술이 전체의 55%에 해당하며 그 거의 전부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개인 역사 서술에 편중되어 있다.

둘째, 『조선력사』는 우리 역사를 “안팎의 원수놈들을 반대하여 싸워 이긴 인민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투쟁의 양성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근대이전은 중국과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투쟁사를 강조하였으며, 근대 이후는 김일성 일가의 반미, 반일 항쟁사의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조선력사』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발견을 전제로 해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말까지 2천 년간의 역사는 봉건사회였으며, 근대사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 단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북한의 역사교육은 1945~1968년간에는 부르주아적 견해의 배제를 원칙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유물사관에 입각해 사회주의 건설을 주 교육목표로 삼았으나, 1968년 이후 김일성·김정일 유일체계가 정착된 이후에는 주체사상에 입각해 김일성 교시에 의한 역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국사 교육체계는 철저하게 김일성 가문의 반외세·반봉건 투쟁을 부각시킨 현대사 위주의 “혁명역사” 교육이 위주가 됨으로써 국사교육이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

끝으로 남북한 역사교육의 이질화 현상은 앞에서 분석한 교과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국사 교육의 실제 내용은 『조선력사』 교과서보다는 별도의 교사용 교수안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995년 12월 27일자)

3. 남북한 교과서의 역사용어 및 개념에 대한 비교

남북한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 주목할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표현, 즉 역사용어에 대한 문제이다. 9세기 농민전쟁(신라말 농민반란)이나 3.1인민봉기(3.1운동)등 용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 이후 더욱 심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을 차이를 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력사』 3·4 | 『국사』 | 『조선력사』3·4 | 『국사』 |
|-------------------|---------------|--------------------|--------|
| 평양농민군들의 투쟁 | 민란(1174~1179) | 1862년 농민폭동 | 임술민란 |
| 공주농민군의 투쟁 | 망이·망소이의 난 | 프랑스 함대 침입 | 병인양요 |
| 경상도 농민군의 투쟁 | 김사미·효심의 난 | 1874년 미제의 대규모 무력침공 | 신미양요 |
| 만적의 폭동계획 | 만적의 난 | 1882년 군인폭동 | 임오군란 |
| 1467년 함경도 농민전쟁 | 이시애의 난 | 1884년 부르조아혁명 | 갑신정변 |
|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 임진왜란 | 1894년 농민전쟁 | 동학농민운동 |
| 시공인 | 시전상인 | 1894년 부르주아개혁 | 갑오개혁 |
| 1811~12년 평안도 농민전쟁 | 홍경래의 난 | 3.1인민봉기 | 3.1운동 |

위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선력사』는 반란을 전부 투쟁이나 전쟁으로 확대 표현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을 풀어쓰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배층에 대한 반란은 농민들의 투쟁이며, 인민들의 전쟁으로서 역사발전의 필연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사』는 집권세력에 반기를 든 사건을 난으로 표시하였다. 집권층이라고 무조건 매도되어서는 곤란한 것이고 농민층이라고 전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역사 사실의 객관성과도 배치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조선력사』의 경우에 지나치게 지배층에 대해 욕설과 선동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남북한 국사교과서에 보이는 역사인식과 교과서 서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Ⅲ.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국사교육 방안

이상 남북한 국사교육의 현황과 국사교과서의 내용비교를 통해 통일대비 교육에서 국사교육이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관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통일대비 국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

북한의 국사교육은 1968년 이후 김일성·김정일 유일체계가 정착된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 교양을 위한 수단이자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면서, 고등중

학교 교과과정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합해 총 280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어있다.

반면 우리는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은 사회과에 통합·위축된 상태이며, 고교에서의 국사교육은 제도상으로는 필수 독립교과로 112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고 세계사의 경우는 선택과목으로 인문계학생들만 선택·이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의 현행 교육 제도는 그 성격상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일선학교에서의 국사교육 현실은 더욱 비관적이다. 즉, 대입제도가 수능시험으로 바뀌면서 국사가 독립시험과목이 아니라 통합교과목으로 된 결과, 고교 3학년의 경우 국사시간에 시험 비중이 높은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등 제도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등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입시에서의 비중감소는 일선학교에서의 국사교육 소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국사교육의 위축 현상은 정부가 1995년 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안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 개편에서 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독립필수과목이었던 국사를 폐지하고 실과를 대체하며, 인문영역에 속한 역사관련 과목은 고등학교 2~3학년 심화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한다. 또한 대학의 국사교육도 종래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한국사가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 대학의 학부제 개편과정에서도 실용과목에 밀려 인문학이 위축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사 등 역사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사범고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에서도 국사를 시험과목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정부 방침도 각급 학교에서의 국사교육 경시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일반학생들이나 국민들의 국사에 대한 관심도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사 교육이 이름만 남게되는 추세가 확산될 경우 통일 후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관건적 역할을 할 민족사 교육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대 통일교육 연구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사와 교육행정이 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의 64.6%가 현행 학교 통일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대답했다. 또 교과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아예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 55.7%에 달했으며 있어도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과목별로는 윤리와 사회·역사·국어의 경우는 통일교육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통일교육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28.8%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도 통일 교육이 경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자료부실”이 20.2%, “통일 교육관련 교과 내용이 없다”가 15.9%였다. (『문화일보』, 1996년 4월 22일자)

이러한 조사 결과를 참조해 볼 때, 정부 차원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모토로 한 국사교육의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사과의 독립필수 과목화와 대학에서의 국사교육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각급학교 입시와 국가고시에서의 국사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일 이후 국사교육에 대비한 교과서 개편에 관한 제안

(1) 국사교과서 개편 작업의 방향

통일 이후에 대비한 국사교과서 개편 작업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독일과 러시아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통독이후 서독의 국사교과서에 통일과정에 대한 부분을 첨가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구소련에서 공산정권이 붕괴한 1991년 이후 3년이 지난 1994년 교과과정 전체를 완전히 혁신한 환골탈태의 ‘교과서 혁명’을 이룩하였다. 즉 공산주의 교리를 기계적으로 암기토록 하던 종래의 교육방법을 혁신해 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제일목표로 삼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리가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등장하고 언론자유, 공민권, 기업경의 기본원리 등에 관한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한다. 물론, 레닌사상과 계급투쟁사 등은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역대 공산당 지도자들의 사진이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위대한 교시들도 과거 그들이 탄압했던 러시아 문인들의 글이나 성경이나 코란에서 인용한 글들로 대체되었다. 즉 1994년 9월에 전국적으로 보급된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심어졌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일부)지역 무장 봉기의 승리” 또는 “사회주의자들의 쿠데타”로 이들이 이룩한 국가는 인민들이 “툽니바퀴의 이”가 된 전체주의 사회로 묘사되었다. 또 공산정권 시절 영웅으로 추앙되었던 레닌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로, 이밖에 스탈린은 정적을 무자비하게 처단한 “정치무법”, 그의 집권기는 “무법시대”로 각각 기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과 러시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이후 북한지역을 포괄한 통일 한국의 각급 학교 교육용 국사교과서는 북한 교과서의 내용 중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양양하고 있는 부분은 내용의 합리성을 부여하여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여 서술토록 하고 통일을 전제로 한 ‘한국역사’ 서술 작업을 선행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국사교과서 개편 지침에 관한 제안

사회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교육내용을 적절히 보완하고 바뀌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때 국가가 “국책과목”으로 지정돼 정권차원의 정당성을 담당하는 도구로 이용된 적이 있었다. 즉 역사교육이 갖는 국민 통합적 기능을 악용한 것은 근대 이래 국가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사·자국사의 교육을 등한시 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게는 우리사회의 민주적 다원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완성과 크게는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 대비하는 국사교과서의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 확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교

육내용의 객관화와 풍부화를 도모해야 한다. 즉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국제화의 흐름에 맞는 보편성을 확보한 세계사의 발전 방향에 부응하는 국사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맹목적인 민족정신의 추구를 회피되어야 한다. 특히 1945년 이후 남한의 대외관계·정치·경제·교육·사회 등 제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긴 역사적 안목으로 고찰하면서 우리 현대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시기의 역사를 정체 혹은 퇴영의 역사로 보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즉 해방 이후 한국사에 짙게 깔려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악조건이 점철된 속에서도 남한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긍정적 변화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성장, 국민교육의 확대와 향상, 사회의 평등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등을 주목해야 하며, 이 와중에서 한국민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갔다는 관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② 시민사회에 맞는 시민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역사 교육

역사해석에 있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국사의 실체에 접근해야만 한다.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다양한 사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교과서에서도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준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현재의 국사교과서의 분량을 대폭 확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사교과서는 300년 역사를 기록했는데도 5,000년 역사를 기술한 우리 국사책의 두 배에 달하는 분량을 갖고 있다. 요컨대 다양화된 시민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고와 비판력의 함양을 위해 획일적인 국정교과서보다는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교과서를 학교에 따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통일 후 여러 가지 여건에서 남한과는 상당한 격차와 문화적 차이를 보일 북한지역 실정에 맞는 국사교과서의 개발을 위해서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③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 집필진의 구성

국정교과서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사교과서 집필진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1994년 초에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정되어 96학년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개편을 위한 준거시안을 둘러싼 국내 보수학계와 진보학계간 논쟁을 돌이켜 볼 때, 집필진 선정에 유의해야만 한다. 즉 94년 당시 국사교과서 개편안의 근현대부분을 담당했던 소장 학자들이 작성한 「국사교육 내용 전개 준거안 연구위원회」의 한 시안이 1946년 대구에서의 좌익폭동을 “대구항쟁”으로 제주 4.3사건을 “4.3항쟁”으로, 그리고 여순반란 사건을 “여순사건”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이해시키자는 내용의 시안을 내놓았다가 정치권에까지 그 여파가 미친 교과서 파동으로 번진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국사교과서 집필진 선정에는 한두 명의 학자가 집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중립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집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들에 의해 검토·합의된 보편타당한 사관에 입각한 국사교과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통일 후 국사교육 준비위원회’ 발족

교육인적자원부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 산하에 일선 각급 학교의 국사과 담당 교

원 대표와 각 시대별·분야사별 한국사 전공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가칭 “통일 후 국사교육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국사교육 방향과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이 위원회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 이후에 사용할 각급 학교용 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준비작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독일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독일식 역사 교육 모델을 활용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실현과 시민사회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통일 이전 단계에 민족사 인식 체계에 보이는 남북 상호간 간극을 좁히는 노력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간에 재외동포 교육용 국사교과서의 공동 편찬 작업 등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국사교육 대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역사의식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 ‘통일 후 국사교육 준비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남북간의 국사교육의 이질성과 동질성 요소를 구분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국사교육 분야에서 추구할 통합의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준비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을 때를 상정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지역에서의 국사교육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주체사관에 입각한 혁명역사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다원화된 통일 국민국가 민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역사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주민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분단 이후 남북한 현대사를 대비해 보여주는 영상자료를 이용한 대중교육이 TV 등 대중 방송매체나 기존의 사회교육 조직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즉 소련 해체이후 동구권의 변화를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 도입 노력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통일독일의 과거와 오늘 및 남북한 간의 정치·경제적 발전 격차를 시기별로 대비해 보여주는 영상 기획물을 제작·방영함으로써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건설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의 당위성을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입증하면서 종래의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한 혁명역사 위주의 근현대사 교육’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북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공통의 문화유산과 풍습의 발굴과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물도 방송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각급 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은 남북한 교과서의 이질성과 여기서 비롯된 민족사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므로 종래의 북한측 교과서나 이를 가르치던 교원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다소간의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각급 학교의 국사교과서는 전부 남한의 것으로 대체해야 하며, 이를 가르칠 교원의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역사를 교수하던 교원은 전부 교체해야 하며, 조선력사를 담당하던 교원은 재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러나 국사과의 특성상 이들의 재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그 교육성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북한지역에서 새로운 교육제도에 의한 국사과 교사자격증 취득교원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교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남한에서 파견된 교원들과 정년퇴직한 국사과 교원들 중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 일선 교육기관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년 이후의 교원 중 자원봉사자의 선발은 북한지역 연구자 위주로 선발하면 그 교육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대학에서의 국사교육도 일반교양과정에서 필히 이수하도록 교양필수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역사과 교원의 양성을 담당하는 사범대학이나 역사를 전공하는 사학과와 경우 교수요원의 교체가 필연적일 것이며, 이들 북한대학의 교수들은 재교육 후 주체사상의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반 교양과정이나 전문과정의 교재들은 남한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교수요원들은 남한 측의 교수인력을 공채 등의 형식을 통해 충원해야 하리라고 본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에 즉시 ‘통일 후 국사교육 준비위원회’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민족공동체의식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남북한 양 지역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국사교과서의 통일민족국가사의 시각을 확립해야 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양 지역은 같은 민족의 같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역사관과 역사의식의 차이로 한 가지의 역사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상이하게 서술된 역사를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민족사로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양 지역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통일의 당사자인 양 지역의 주민들의 통일된 민족의식과 역사관은 대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서술은 양 지역의 한민족에게 있어 분명 중요한 역사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세계화와 국제화 사회에서 최소한의 彼와 我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단일의 역사 서술은 이루어져야만 되며, 자라나는 2세들에게는 단일의 역사를 가르쳐야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과 교육으로서 국사 교육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통일 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사 교육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통일 대비라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무수한 담론들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민족정체성에 대한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 어떤 분야도 가벼이 그리고 쉽게 다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논의되고 합의되는 방안은 필요에 의해 분명 도출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인식의 전환은 분명 일정한 시간과 타당한 방법과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 이후의 민족정체성의 확립과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통일 대비 국사 교육의 준비는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으며 변화하고 있는 주변정세와 국제질서의 변화로 볼 때

한 시라도 빨리 착수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와 국제화의 흐름에 맞는 보편성을 확보한 세계사의 방향에 부응할 수 있는 국사교육, 둘째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다양한 사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현재의 국사교과서의 분량의 대폭적 확충, 셋째 근현대사 부분의 정치적 예민함을 감안한 중립적 집필진에 구성, 넷째 ‘통일 후 국사교육 준비위원회’의 신속한 구성과 활동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급작스러운 통일 상황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차원에서 매뉴얼화 하여 사전 연구와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빌리 브란트 w, 李泰永 역 (1979). 『평화에의 의지』. 日新社.
-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1990). 『統一獨逸』.
- 國土統一院(1990). 『統一問題研究』2-1(통권5).
- _____ (1990). 『統一問題研究』2-4(통권8).
- 남북문제연구소(1994). 『교과서를 통해본 북한』. 남북문제연구소.
- 양성철·박성조 (1991).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1993). 『독일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민족통일연구원(1995). 『독일의 정치교육연구』.
- 신용철(1992). “문화교류와 독일의 통일.” 『石井 卓用國博士 停年退任紀念論文集』. 慶熙大學校 史學科.
- _____ (1994). “독일의 교육통합 -교육을 통한 한국 통일방안의 모색-.” 『亞太研究』. 창간호.
- 이찬희 외 (1991). 『북한의 「조선력사」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찬희 (1993). “북한의 역사교육 연구 -「조선력사」신·구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우철·신형식(1990). “남북한 국사교과서(중학교)의 비교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Vol. 57.
- 『조선일보』(1995. 3. 1~1995. 12. 27). “역사 南과 北 -분단 50년 국사교과서 비교 1-14.”
- 교육부(1995).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공통사회, 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4).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연복·문동석(2002). “남북한 초등 역사교과서 비교연구.” 『사회과교육』. 제41권, 2호.

- 정영순(2006).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연구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5권, 1호.
- 교육도서출판사(주체 91년 / 2001). 『조선력사 2, 3, 4, 5, 6권』.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1982). 『주체학습론』.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孫啓林 外編(1988). “朝鮮教育.” 『現代海外教育』. 大連: 海運出版社.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Recognition toward History in South and North Korea – Centering Around Historical Textbooks

Jun-Tae Lee*

History textbook, designed to be used for educational purpose, tends to be considered as an emblem expressing a social or national identity. It is true that all kinds of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sulted from the more than a half century's separation and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ideology. Most of all, although two countries share the same historical background, it is obvious that there is huge difference in describing each country's history.

For instance, ““with positively analyzing historical events or facts, historians in South Korea tend to focus on establishing nationalistic legitimacy and promoting people's pride of self-reliance Korean history.”” Yet, North Korea historians, based on proletariat social revolution ideology, tend to emphasize anti-foreign influence and building their country as a socialist state's model. For these differences between two Korea's historical views, it is appropriate to expect that the next generation of two Korea may have great difficulty in recovering their historical homogeneity when two Koreas are unified as one country.

Thus, it is time for discussing the implicit meaning of such difference and searching for a history education method designed to actualize peoples' nationalistic identical unification. In order to realization peoples' identical unification after the geographical unification, we need to modify our own history textbooks now. It is necessary for two Korea's historians to consider the following indications of modifying history textbooks. First, the new textbook must be met a global and universal standards of international history. Secon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in terms of describing a certain country's history, the new textbook must cover the diverse viewpoints in describing Korean history. Third, historians for the new textbook must have neutral viewpoint in terms of their political ideology because they are to evaluate certain political events of current period. Fourth,

* Faculty of General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new 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is autonomous and designed to modify Korean history textbook, for instance, “the committee of history education for the unified Korea.””

■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0일